

**건축가 브르노 타우트가 日本 近代建築에 미친 影響에 관한 考察

A Research of that Architectural Influence of Bruno Taut on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김기수* / Kim, Ki-Soo

Abstract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the characteristics in Bruno Taut of architecture and its influence in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We also can study how to harmonize Japa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with western architecture through activities of Bruno Taut in Japan. Especially, Japanese architectural society had a dispute on their national architectural style in 1910. During the 1930's, however, the rationalist architects denied this 'Jaegwan' style architecture, and insisted a different new Japanese architectural style. Thus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adapted two axis of Western and Japan, it had been developed with their conflict and harmony by turns. This activities of Bruno Taut in Japan deeply and freshly influenced on the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al situation.

키워드 : 브르노 타우트, 일본근대건축, 합리주의 건축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독일 근대건축의 선구자였던 부르노 타우트가 일본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은 일본의 근대건축의 형성과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일본에 체류한 1933년 5월부터 1936년 10월까지의 기간은 일본 근대건축의 전환기이며, 보수적 성향의 건축가와 진보적 성향의 건축가가 자국의 독자적인 근대건축 스타일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고건축에 대한 브르노 타우트의 관심은 당시 일본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정신과 미를 부활시켰다고 하며, 그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남긴 활동¹⁾은 직, 간접적으로 일본의 근대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 일본건축계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구조에 브르노 타우트의 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르노 타우트 건축이 갖고 있는 근대적 성향과 일본에서 그의 활동이 일본 근대건축의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브르노 타우트의 건축적 활동은 당시 젊은 건축가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고찰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현대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본의 근대건축을 관찰하는데 있어 1930년대 이전의 건축경향과 이후에 대해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근대건축이 시작된 시기는 서구의 근대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명치유신(1868년)이후의 시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근대건축이라 함은 서양의 합리주의, 기능주의 건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서구의 후기 고전주의 건축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서양과 같은 모더니즘 건축이 나타나는 것은 1920년 일본분리파건축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의 일이다. 또한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1930년대로, 이 시기 일본에는 상이한 두 개의 근대건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일본 근대건축을 고찰하는데 있어 두 경향의 건축가들을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명치유신 이후 서양의 고전주의, 절충주의 건축을 추구해 온 경향을 보수적 근대건축으로, 1920년대 이후 합리주의, 국제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축적 경향을 진보적 건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물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보수와 진

* 정희원,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건축학박사

** 이 논문은 2001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신진연구기금)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그는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일본문화에 관한 4권의 저서와 2개의 주역 작품, 1개의 계획안과 대학에서의 강연, 특강 등 교육활동을 하였다.

보란 용어는 이들 건축이 갖는 집단적 특성보다는 1930년대 일본건축계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브르노 타우트의 건축 활동과 주요작품을 통하여 그의 건축이 갖고 있는 근대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일본에 체류기간 중 브르노 타우트가 일본에서 집필한 문헌, 건축 활동과 선행연구²⁾를 통하여 그가 당시 일본건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어서 당시 그의 활동이 일본의 건축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한다.

2. 브르노 타우트 건축의 근대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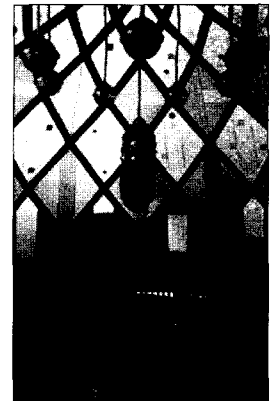
2.1. 건축가 브르노 타우트

1880년 프로이센에서 출생한 브르노 타우트는 1902년 쾨니히스베르크의 토목건축학교 졸업하고 슈투트가르트, 베를린에서 실무를 거쳐, 1909년에는 J.호프만과 개인사무소를 공동으로 개설하여 본격적인 건축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913년에 '철의 모뉴먼트'(Monument des Eisens, Leipzig, 1913)란 작품으로 국가 건축상을 수상하면서 독일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부각하였고, 이후 독일 전원도시협회, 예술노동평의회³⁾에서 활동하면서 독일 근대건축 운동의 리더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그는 도시계획 및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여, 1921년에는 마그데부르크(Magdeburg)시의 도시건축감독관, 1924년에는 베를린의 공익주택저축건축조합(GEHAG)의 건축책임관, 1930년에는 샤르로텐부르크 대학의 교수로 활약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나치정권에 의해 독일사회가 경직되면서 근대건축운동도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나치정권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브르노 타우트는 1932년 모스크바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당시 독일의 주요 건축가들이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로 망명한 것과는 달리 브르노 타우트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향하였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자본주의하의 건축가들이 한번도 그려보지 못한 건축적 가능성을 부여한다"⁴⁾는 말처럼 그는 건축적인 기대를 안고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로 건너갔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이듬해인 1933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1936년 10월에는 두 번째 망명지인 터키로 건너가 앙카라 건설국 주임, 이스탄불 예술대학 건축학과장으로 활동하였지만 1938년 이국의 땅에서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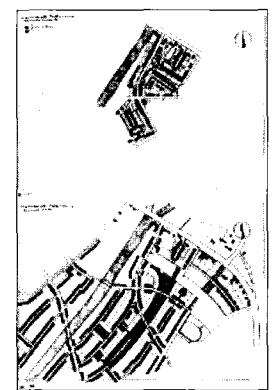
2.2. 브르노 타우트 건축의 근대적 성격

(1) 기하학적 추상

1914년 쾰른박람회에 발표되었던 유리집의 내부공간은 <그림 1> 색유리와 다양한 반투명에 가까운 색채 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색채들의 표현은 자연풍경에서 차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우주의 파노라마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연의 원리인 빛을 가시가능한 장치(건축)로 표현한 공간이다. 즉 브르노 타우트가 추구하고 있는 색채는 공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요소로서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각각 독립된 요소가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하학적 추상성을 추구하려는 건축가의 의지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구성 방법이다. 예를 들어 1913년의 전원도시 계획안<그림 2>에서 외벽의 다양한 색채구성은 이러한 그의 주지적 조형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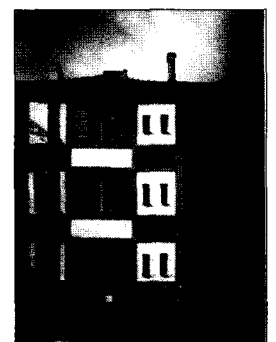


<그림 1> 유리 집(Glashaus, Köln, 1914)



<그림 2> Am Folkenberg Siedlung 주거의 배치계획 1913-14

특히 1920년 발표했던 '색채선언'에는 이러한 색채와 공간에 대한 브르노 타우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1913년 주택 계획안의 지붕, 창, 문의 윤곽에서는 바로크 양식을 연상케 하는 조형을 선보이고 있다.<그림 3> 조형적으로는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을 기하학적 추상으로 단순화시키고 있지만, 황, 청, 적, 녹색에 의한 색채구성은 시각적으로 각각의 주호를 분리시키면서 바로크 건축이 갖는 화려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형식을 답습하기 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조형을 통한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Am Folkenberg Siedlung 주거의 입면 1913-14

(2) 절대시점의 변화

베를린 공익주택저축건축조합에서 설계한 공동주거는<그림 4> 건축의 예술적 측면보다 건축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된 프로젝트였다. 공동주거의 계획주체는 주민으로 여기에는 특정시점에서 전체의 공간을 지배하려는 건축적 장치는 배제되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위해 계획

2)김정동,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서양건축의 전이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0

3)초대회장은 브루노 타우트, 2대 회장은 윌터 그로피우스로 당시 독일 근대건축운동의 대표적 단체였다.

4)세존미술관, BRUNO TAUT, 1994, p.252

된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공동주거의 산만한 배치계획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시점에 의한 투시도적 구도를 거부하는 대신 각 시점마다 연속하면서 생성되는 풍경은 각 주호의 개성적 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의한 투시도적 풍경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치 근세의 일본화를 연상하게 하는 색채변화와 연속하는 파사드에 의한 건축만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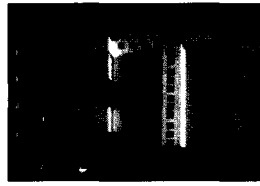
한편 이처럼 특정시점을 배제하려는 브르노 타우트의 생각은 그의 회화작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의 1903년 '얼음밑의 나뭇잎, 1903', '松林, 1903' 등의 회화에는<그림 5> 전경과 원경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동양적 회화의 기법이 숨겨져 있다. 이것은 특정 시선에 의한 풍경이 배제되어 서구의 투시도적 구도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마치 보는 측보다는 보여 지는 측으로 시점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처럼, 이들 회화작품에는 불특정 다수의 시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회화에서 인상주의가 쇠퇴하고 새로운 전위예술인 입체파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시점이란 구도가 당시의 사회상에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시점이 건축적으로 등장한 것이 1913년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동주거 계획안이었다.

(3) 공간적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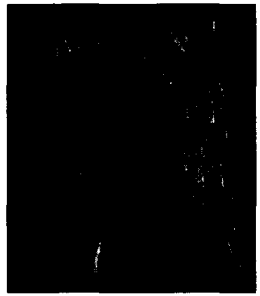
1914년 유리의 집에서 보여준 파인애플 형태의 돔<그림 6>, 유리블록의 벽체, 환상적인 내부 공간(홀의 공간)은 유리에 의한 고딕성당, 다이아몬드 성을 이미지하는 것으로 투명한 유리에 의한 새로운 기법을 탐구하고 있다.

이 작품은 마치 프랑스 큐비즘 작가인 들로네⁵⁾의 1912-13년 작품인 '창'에서<그림 7> 나타난 표현적 특성을 그대로 건축에 옮겨 놓은 듯하다. 색채와 투명과 반투명의 면들에 의해 겹쳐지는 공간의 모습은 유리와 반투명 타일의 조합을 통해 환상적인 색채감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공간의 투명성보다는 물질적 특성을 소멸시키는 비 물질화를 통한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다양한 형태와 패턴, 투명과 반투명, 불투명의 유리와 타일이란 재료를 통하여 미묘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4> Wohnblok in Berlin(Weinensee 1925-30)



<그림 5> 브르노 타우트의 초기회화 작품(1903)



<그림 6> 유리의 집 (Glashaus, Köln, 1914)

5)파리 출생. 주로 역사화를 그린 고전주의 화가 J.E.들로네의 아들로, 처음에 신인상파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색채 연구에 열중하였고 이후 입체파 운동에 참가하였다.

여기서 브르노 타우트는 직각방향의 수직선, 수평을 따라 구성된 불규칙한 색의 패턴 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재료가 갖는 자율적 질서와 고유한 물질적 성질이 사라져 버린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⁶⁾ 한편, 1925년의 베를린 공동주택은 가로 축의 고층입면의 경우 추상적 색채의 백색을 바탕으로 청, 황, 적색으로 구성된 리듬감을 통하여 원래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조적조 건축이 갖고 있는 구축적 성격을 제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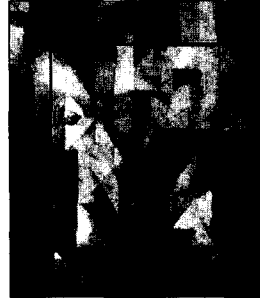
특히 이 건축물이 갖고 있는 추상적 박스에 의한 조형은 1923년 강연을 위해 방문했던 네덜란드에서 JJP 아우트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⁷⁾

<그림 8>이후 이러한 브르노 타우트의 기법은 공동주택 조형의 원형으로 자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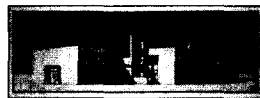
(4) 오브제와 건축적 은유

1919년 '알프스 건축' 계획안에서 브르노 타우트는 대지를 건축화하려는 은유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1916년 '콘스탄티노블 우호회관'의 설계경기 참가를 위해 이스탄불을 방문했던 브르노 타우트는 인공의 대지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모스크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그가 저술한 '알프스의 건축'에는 마치 이스탄불의 연속하는 언덕과 같이 몬테자르의 알프스 산맥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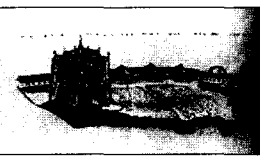
1914년 '유리의 집' 토대는 마치 대지를 상징화하고 있는 조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1920년의 '폴커벵커학교 계획안'<그림 9>은 작은 산맥과도 같은 교실군이 크리스탈 하우스를 둘러싸고 교육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가 이방인이 되어 찾은 일본에서도 대지를 통한 건축적 은유를 시도하고 있다. 1933년 계획된 '生駒山嶺小都市計劃'<그림 10>은 이 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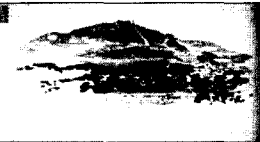
<그림 7> Ein Fenster, Robert Delaunay, 1912/13



<그림 8> JJP 아우트의 주거계획안



<그림 9> 폴커벵커학교 계획안,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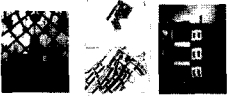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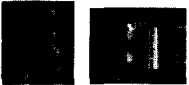


<그림 10> 生駒山嶺小都市計劃, 1933

6)Winfried Brenne, 知的色彩, 색채에 의한 건축 세존미술관, op. cit., p.252

7)1921년 JJP 아우트의 작품인 카렌바르 저택의 기하학적 구성에 자극을 받아, 브르노 타우트는 이 작품에 대하여 자신의 문장을 첨가하여 'Frühlicht' 4호에 자세히 소개하게 된다.

의 실현을 시도한 것으로, 이 계획은 이미 1919년 '都市의 冠'에서 마음속에 그렸던 대지의 건축화였다. 이상과 같이 브르노 타우트의 건축이 갖는 근대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표 1> 브르노 타우트의 근대적 건축기법

전위예술의 근대적 조형개념	브르노 타우트의 건축기법	작품사례 및 비교
기하학적 추상	색채공간 주지적 조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리의 집<Glashaus, Köln, 1914> Am Folkenberg Siedlung의 연속주거, 1913-14
절대시점의 변화	다시점 건축 불연속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21-1924년 공동주거 브르노 타우트의 초기회화 작품
공간적 투명성	비물질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리의 집<Glashaus, Köln, 1914> Wohnblok in Berlin-Weinensee, 1925-30
오브제와 건축적 은유	대지의 건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폴카벡커학교 계획안, 1920 生駒山嶺小都市計劃, 1933

3. 브르노 타우트의 일본건축에 대한 인식

3.1. 일본의 고건축에 대한 인식

독일의 근대건축운동을 이끌었던 브르노 타우트는 1932년 모스크바를 거쳐 일본으로 망명한다. 1933년 5월 3일 일본인터내셔널건축회의 초청으로 츠루카(敦賀)항에 도착한 브르노 타우트는 1936년 10월까지 약 3년 반을 일본에 체류하였다.⁹⁾ 특히 브르노 타우트의 '日本' 등 활발한 저술¹⁰⁾과 작품¹¹⁾ 그리고 강연회 등의 교육활동¹²⁾은 당시 전환기에 있었던 일본 근대건

8) 하정운·김기수·조용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의 조형개념에 의한 현대건축의 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002.10]

9) 브르노 타우트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인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일본의 츠루카항에 이르는 동안 한국(조선반도)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의 해안선은 마치 큰 산맥을 펼쳐 놓은 파노라마와 같다. 이 산맥 자체가 마치 지도와 같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취락에 대해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중략) 집들이 등고선을 따라 테라스 풍으로 모여 있다.' 블루노타우트著, 森僑郎譯, 日本, 明治書房, 1941, p.13

10) 1. Nippon. mit europäischen Augen gesehen(ニッポン—ヨーロッパ人の眼で見た) 平居均譯, 明治書房, 1934/ 森僑郎譯, 1941

2. Japans Kunst(日本文化私觀), 森僑郎譯, 明治書房, 1936

3. Houses and People of Japan (日本の家屋と生活), 三省堂 영어판 1937, 일본어판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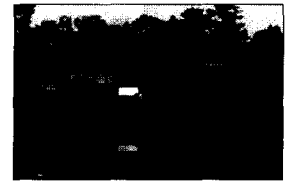
4. 日本美の再發見, 傑田英雄譯, 일본어판 1939

11) 1933년 生駒山嶺小都市(계획안), 1935년 日向邸 - 吉田鐵郎共同作業, 1936년, 大倉邸 - 久米權九郎共同作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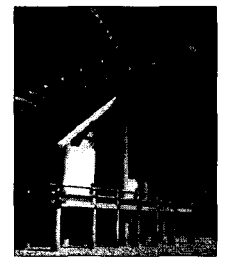
12) 群馬縣 工藝學校고문

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한 그의 일본 고건축에 대한 관심과 관찰은 당시 서구화를 지향하며 일본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일본의 정신과 미를 부활시켰다고 한다.¹³⁾

특히, 브르노 타우트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카츠라별궁(桂離宮), <그림 11> 이세신궁(伊勢神宮) <그림 12>과 민가 등 일본의 고건축을 근대적 시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카츠라별궁에 대하여 그는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에 비유하면서 '이것은 세계에 둘도 없는 것', '경탄할 가치가 있다'¹⁴⁾라며 그 순수함과 구성의 명쾌함을 주목하였다. 또한 카츠라별궁은 실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간명직절(簡明直截)하게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어 기능주의적 건축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현대적인 건물로 평가하였다.



<그림 11> 카츠라별궁 (桂離宮)



<그림 12> 이세신궁 (伊勢神宮)

한편 이세신궁에 대해서 "이들의 구조가 투명무비(透明無比)하고 또한 명확하며, 개방적이고 단순하며, 형태는 구조와 일치하고 있다.(중략) 이렇게 순수함을 가진 구조와 재료는 순수한 점에 있어서는 타 건물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비례를 가지고"¹⁵⁾있다고 하며 일본 고건축이 갖는 형태적 특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재료의 선택, 가공법에 의한 탁월한 비례, 세심히 연구된 벽, 담장, 문은 고전의 단순함과 명쾌함을 갖고 있고', '간소하게 제작된 소박한 생활' 등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는 '청초함, 명등함(明澄-맑고 깨끗함), 간정(簡淨), 단순함, 자연 소재에 대한 이상적 사고'가 일본 고건축이 갖는 특성이며, 이는 당시 유럽 건축가들의 주목받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⁶⁾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고건축에 대한 브르노 타우트의 평가 기준이 기능주의, 합리주의적 건축사조에 연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브르노 타우트가 일본의 고건축에서 근대건축의 특성을 최초로 발견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도 있다.¹⁷⁾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츠라별궁의 발견자로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그가 갖는 근대건축의 선구자적 이미지와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브르노 타우트가 지적했었던 일본 고건축의 특성이

13) 佐渡谷重信, 解説, 블루노타우트著 森僑郎譯, 日本文化私觀, 講談社學術文庫, 1996, p.342

14) 블루노타우트著, 森僑郎譯, 日本文化私觀, 日本, 1941, op. cit., pp.155-156

15) Ibid., pp.21-31

16) 블루노타우트著, 傑田英雄譯, 日本美の再發見, 岩波書店, 1972, 第36刷, p.9

17) 井上章一는 브르노 타우트에 의해 카츠라별궁 등 일본 고건축의 특성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井上章一著, つくられた桂離宮神話, 講談社學術文庫, 1997, p.81

당시 일본의 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었던 특성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⁸⁾ 즉, 이세신궁, 카츠라별궁에 대한 합리적 기능주의적 관점의 평가와 카츠라별궁과 일광사(日光), 천왕(天王)의 예술적 취미와 장군(將軍)의 예술적 취미라는 대립구도의 설정은 진보적 건축가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고건축에 대한 브르노 타우트의 평가가 일본건축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첫째는 당시 일본건축계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서 열세의 위치에 있었던 서양의 합리주의 기능주의 건축을 추종하였던 진보적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며, 둘째는 1910년대 이후 일본건축계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일본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게 된 점이다. 먼저 진보적 건축가와 브르노 타우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1930년대 일본건축계에 대한 그의 인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브르노 타우트의 ‘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는 근대/전통, 서구/일본이라는 대립적 틀을 제시하였고 이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보수화 경향이 팽배했던 일본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 대해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는 “이것은 1942년이라는 시점에 있어 근대/전통, 서구/일본이라는 두 대립점이라는 틀은 ‘근대의 초극’¹⁹⁾이라는 논쟁에서 나타난 구도로 이러한 구도를 만들어낸 원인중 하나가 ‘일본적인 것’이라는 문제구도를 건축의 레벨에 도입한 브르노 타우트의 일본 재발견에서 유래한 것이다.”²⁰⁾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일본 고건축에 대한 브르노 타우트의 평가는 진보적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그리고 1940년대 일본건축계에 국수주의적인 건축의 틀을 제공하였다.

3.2. 1930년대 일본건축에 대한 인식

단순히 외형적 모방에 지우쳐 있었던 1930년대 일본건축계의 현실에 대하여 브르노 타우트는 ‘하나의 낭만적으로 보는 오래된 인습을, 또 하나는 유럽인이 보던 일본인이 보던 각각의 차이’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는 근대건축에 대한 유럽과 일본이 갖고 있는 시각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고건축에는 이미 근대건축의 제 원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건축계는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보수적인 건축

18) 동경제국대학의 건축학과 교수였던 기시다(岸田日出刀), 인터내셔널건축회 소속이었던 건축가 호리구찌(堀口捨己) 등은 이 시기 일본 고건축의 특성으로서 단순, 명쾌, 자연미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19) 1940년대 초 京都學派가 중심이 되어 근대의 초극이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西歐가 覇權을 장악하고 있던 近代의 世界가 몰락하고 비유럽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관을 건설해야 한다는 당시 일본사회의 대표적 국수주의 논리였다.

廣松涉著, 近代の超克論, 講談社學藝文庫, 1996

20) 磯崎新著, 建築における日本的なもの, 新潮社, 2003, p.117

가들이 피상적인 서구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적인 특성을 가진 건조물에서도 그 특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풍의 형식을 붙이는 건축물들이 무수히 지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군인회관, 오진(大津)의 비와호(琵琶湖)호텔 등이 그러하며, 나라(奈良)의 신정차장에 붙어있는 사원풍의 첨탑 등은 고도인 나라(奈良)의 역사적인 권위에 대한 최악의 모습이다.”²¹⁾

인용문에서와 같이 당시 보수적 건축가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근대건축은 자국의 건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브르노 타우트는 일본 고건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즉, 그의 ‘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일본 건축계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작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유럽인과 미국인이 일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타 국민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한 장래의 일본이 세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고 관계할 것인가’란 근대건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문제였다.

이러한 근대건축에 대한 주관적 사고는 일본근대 건축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는 일본건축이 일방적으로 서양의 건축을 수입하던 구도를 벗어나 독자적인 건축을 추구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국 건축의 특성’ 혹은 ‘일본적인 것’에 대한 점이 건축적 이슈로 부각되었다는 것은 일본 건축계가 이미 서양건축계를 의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르노 타우트의 ‘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는 외부에서 당시 일본건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 근대건축이 외부로 향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브르노 타우트의 ‘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 방향을 분류해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중국문화에 대한 ‘일본적인 것’의 탐구, 그리고 근대문화 혹은 서구문화의 관점에서 본 ‘일본적인 것’, 마지막으로 장래 일본의 새로운 건축에 필요한 ‘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이다.

4. 브르노 타우트의 ‘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

4.1. 중국문화와 ‘일본적인 것’

브르노 타우트는 고대 중국문화와 일본문화의 관계를 아테네의 그리스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로마문화와 비교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문화는 힘을 바탕으로 일본문화에 영향을 주었지만, 일본정신은 중국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

21) ブルーノタウト著 森嶋郎譯, 日本文化私観, 明治書房, 1941, pp.295-296

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건축 특유의 규칙과 기이한 양식이 일본인의 섬세한 감각에 의해 해소되어 부드러운 선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예술이 중국의 예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화하는 동시에 일본적인 미적 감정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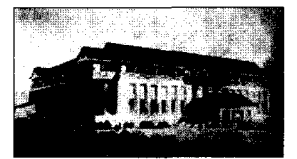
이러한 대륙문화와의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천황의 취미(天皇趣味)와 장군의 취미(將軍趣味)로 대립되는 카츠라별궁과 일광사를 예로 들고 있다. 즉, 천황의 건축인 카츠라별궁은 자유로운 예술정신에 의해 창조된 예술인 반면에 장군의 건축인 일광사는 피할 수 없는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잡다한 건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카츠라별궁은 대륙문화와 일본문화의 갈등을 훌륭하게 해결하고 있는 증거로 평가하고 있다.²²⁾ 또한, 브르노 타우트는 대륙문화와 일본문화가 갖는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신사(神社)건축과 불교(佛敎)건축이라는 틀을 제시한다. 즉 불교건축의 경우 중국,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은 문화인 반면 일본인이 숭상하는 신사건축은 천황의 예술로 독자적인 전통관에 연결되어, 이것이 일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세신궁으로 이는 고대 중국문화를 극도로 분화시켜 현대적 정신생활과의 조화를 통하여 일본적 감정과 일본의 정신적 고전화를 형성한 일본의 신사건축을 대표하는 건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²³⁾ 특히, 이세신궁의 경우 다른 신사와는 달리 불교의 요소를 거의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일본에서도 가장 일본적인 건축으로 생각되었다.²⁴⁾ 때문에 브르노 타우트에 있어 일본 고건축에서 진정한 '일본적인 것'은 불교건축에서 나타나는 현란한 장식들이 아니라 천황의 예술로 대변되는 카츠라별궁과 이세신궁이 갖는 청초함, 명등(明澄-맑고 깨끗함), 단순함, 간정(簡淨), 자연 소재에 대한 성실하고 이상적인 사고였다. 근대 이전의 일본문화는 중국 등에서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순수한 '일본적인 것'은 중국문화를 그저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신으로 발전된 독창적 성격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보수적 건축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던 일본 건축계에 또 다른 논점을 제공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일본의 건축계는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양식으로서 전통적 지붕과 서양적 몸체를 갖는 제관양식²⁵⁾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로 이에 대해 반대하던 진보적인 건축가들로서는 일본 고건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브르노 타우트의 카츠라에 대한 평가는(중략) 당시 일본 근대주의가 직면하고 있었던 정치적 과제라는 문맥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근대주의를 근거로 하는 건축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구의 예술운동을 모방하여 근대주의적 디자인으로의 이식을 추진했다. 하지만, 1930년대에는 강력한 장애를 만나게 되었다. 그 하나는 이 예술운동이 사회적 혁신운동에 연대된 것으로 탄압받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건축 디자인 상 보수적 기반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적인 양식적 절충주의라고 불리는 강력한 상대와의 경쟁관계에 놓인 것이다.'이것은 제관양식이라 불렀다."²⁶⁾ <그림 13>

즉 근대일본의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당시 보수적인 성향의 건축가들은 일본의 고건축과 서양건축을 절충한 제관양식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진보적인 건축가들의 경우 이를 거부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불사건축과 순수한 일본의 신사건축이란 대립적 구도를 통한 브르노 타우트의 전통건축에 대한 해석은 진보적 건축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림 13> 제관양식의 제실박물관

4.2. 서구 근대문화와 '일본적인 것'

브르노 타우트가 갖고 있었던 '일본적인 것'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서구문화에서 본 일본문화에 대한 고찰이었다. 여기서 그는 먼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차이점과, 서양의 근대문화의 형성에 일본문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구인들에게 있어 동양은 정적(靜的)이다. 정숙과 우주관적 명상의 세계인 것이다. 동양인의 정신적 활동은 먼저 대상 전체를 정관(靜觀)하고, 결정의 순간이 자연적으로 다가옴을 기다리는 수동성에서부터 시작된다. 동양인이 서구인을 볼 때 그들은 동적이다. 대체적으로 분석종합, 방법론적인 사고법과 개인의 능동성의 경지이다."²⁷⁾ 즉, 동양은 정신을 중시하는 정적인 가치관을, 이에 비해 서양은 분석과 방법론을 중시하는 능동적인 가치관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가 서양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란 시각으로, 지금까지 일본 건축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 또한 그에 의하면 근대에 접어들어 서양의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구석구석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일본문화의 순수하고 무구한 형태(form)에서 모티브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서양 근대건축의 시초는 1920년대 유럽풍 주택이지만 이 주택들의 큰 창과 벽체가 갖는 단순함은

22)ブルーノタウト著, 日本美の再發見, op. cit., p.167

23)Ibid., p.35

24)土肥美夫著, ブルーノタウトと現代, 岩波書店, 1981, pp.27-28

25)1931년 실시된 동경제실박물관(東京帝室博物館)현상설계의 당선안과 1934년 가와모토(川元良一)의 설계로 지어진 군인회관 등의 외관을 보면 그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26)磯崎新著, op. cit., p.132

27)ブルーノタウト著, 日本文化私観, op. cit., pp.295-296

일본주택의 순결한 구성과 간소함을 연구한 결과²⁸⁾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는 서구의 근대문화의 성립에 일본의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일본문화가 갖고 있는 청초함, 명등(明澄-맑고 깨끗함), 단순함, 자연 소재에 대한 이상적 사고는 당시 유럽의 모더니스트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들(서양인)이 사랑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고전건축으로, 외국문화의 영향 하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흥미가 덜하다”²⁹⁾며, 일본의 전통문화가 근대화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가 유럽과 미국의 국제적인 형태에 묻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보수적인 건축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축은 마치 자국문화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서양의 외형적 모방 건축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건축 관계자의 일부는 유럽에서는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한 태도이다. 이러한 것에는 예를 들어 평지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경사지붕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평범한 논쟁조차도 없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대적 경향의 심취자도 감상적 낭만주의와의 경쟁조차도 없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각각 독특한 점을 갖고 있지만, 일본의 것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일본적 건축이 현대 상류사회의 서구풍 건축이 되어 있다.”³⁰⁾

상기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브르노 타우트는 일본의 고전문화가 세계문화에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건축가들은 단순히 서양의 건축을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일본적인 것’이 현대에 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들은 앞으로 일본문화는 세계의 근대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과제에 당면하고 있는 일본 건축가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유럽인과 미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자신이 고전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란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브르노 타우트의 시각은 단순한 외국인의 이국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이 자각하고 있지 못했던 자국문화의 중요성을 유럽인인 브르노 타우트의 시각을 통해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미 3.2.항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서양의 근대문화를 통한 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가 일본 근대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서양의 분석적 방법론과 동양의 정신론이라는 대립구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근대건축이 나아갈 성격에 대해 브르노 타우트는 ‘제삼 일본론(第三日本論)’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4.3. 새로운 창조를 위한 ‘일본적인 것’

“제이(第二)의 日本은 조선과 중국문화를 흡수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그리고 제일(第一)의 일본은 오늘의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 보듯이 전사(前史)문화를 독자적으로 흡수 동화해온 대화(大和)의 시대였다. 제삼일본(第三日本) 그것은 서구의 지구 정반대에 위치한 세계문화를 흡수동화한 후 나타나게 될 혼일체(渾一體)이다.”³¹⁾

브르노 타우트가 말하는 ‘제삼(第三)의 일본’으로 향하는 길은 정신적으로 유럽에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럽인이 일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인 유럽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일본인이 유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건축이 정신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건축과 자국의 전통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일본과 서양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일본건축을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보수적 건축가들과는 차별화된 고건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었다. 즉, ‘제삼 일본론’을 통해 그는 서양의 근대건축 발전에 있어 일본문화의 역할과 일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근대건축의 창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예리한 예술가적인 직관과 투철한 철학적 명상과 전문가다운 세계적 건축가로서 브르노 타우트씨의 명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심한 부분에 이르는 관찰을 통해 보다 깊은 일본문화의 전반에 대하여 그 근간을 뚫어보고, 복잡다단한 현대에서 문화적 견지에서 일본의 장래를 그는 소위 ‘제삼 일본(第三日本)’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책이다.”³²⁾

이와 같이 브르노 타우트의 제삼 일본론은 당시 일본 건축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1910, 1920년대 근대건축을 받아들이기에만 급급했었던 일본 건축계에 있어 1930년대 브르노 타우트의 ‘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는 일본 근대건축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그 배경에는 일본사회의 제국주의적 경향화에 따른 건축의 내셔널리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일본사회의 보수화, 군국주의적 경향으로 전통론이 강조되고 있었던 분위기에서 그의 주장은 문화적 내셔널리즘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³³⁾

5. 일본의 신세대 건축가와 브르노 타우트의 영향

“이 책은 타우트씨의 일본관이다. 우리들은 이미 외국인에 의한 일본관에 대해 익숙해 있다. 그러나 본 책이 말하고 있는

28)ブルーノタウト著, 日本, op. cit., pp.5-6

29)Ibid., p.108, 143, 152

30)ブルーノタウト著, 日本文化私観, op. cit., p.301

31)ブルーノタウト著, 日本文化私観, op. cit., p.336

32)譯者の詞, ブルーノタウト著, 日本文化私観, 明治書房, 1941

33)特田季夫子, 解説, ブルーノタウト著 森俊郎譯, 日本, op. cit., 1996, p.198

타우트씨의 일본관은 결코 흔히 외국인이 갖고 있는 표면적인 인상에 의한 일본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믿는다. 마치 철학자 같은 타우트씨가 조심스럽게 일본이라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타우트씨가 어느정도까지 일본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책을 많은 이에게 추천하고 싶다.”³⁴⁾

당시 일본의 건축계는 브르노 타우트에 의한 ‘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가 일본건축에 새로운 방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의 저서인 ‘일본(日本)’과 ‘일본미의 재발견(日本美の再發見)’은 문부성의 우량도서로 선정되어 건축분야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혀졌다.³⁵⁾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브르노 타우트가 제시한 일본건축의 새로운 방법론이었던 ‘제삼 일본론’이 당시의 건축학도, 젊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근대건축을 리드하는 건축가들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일본 근대건축의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기 위해 1942년 건축학회 주최로 개최되었던 대동아공영권기념경기 설계에서 1등으로 당선한 단계겐조(丹下健三)가 제출한 설계개요의 일부분과 1936년 영문판으로 발간되었던 브르노 타우트의 저서 ‘日本の家屋과 建築’의 일부를 비교한 것이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도의 기본에는 일본에서 가장 숭고한 자연인 후지(富士)산의 신야(裾野)를 선택하여 대동아건설충령신역(大東亞建設忠靈神域)을 계획하여 동경과 1시간 거리로 연결하는 대동아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주축으로 하여 각지에 대동아정치의 중추적인 도시건설에 필요한 위치를 부여하고, 일본 정신문화를 일으키기 위한 영조(營造)를 수행하여 광망(廣茫) 속에서 일본세계의 권위의 핵이 되는 지역을 계획하였다.”³⁶⁾

“태양은 밝게 빛나고 대기는 청등(靑燈)하다. 차창으로 보이는 후지(富士)의 모습, 나는 오늘처럼 위대한 후지산(富士山)을 만난 적이 없다. 정상에는 잔설이 남아 있고, 산허리에 걸쳐있는 구름이 裾野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산 정상에서 裾野를 연결하는 부드러운 선은 그 무엇보다 優美한 것이다(중략) 이것이야말로 일본이다. 가장 명확한 형태로 표현된 일본정신이다.”³⁷⁾

먼저 새로운 일본의 건축양식을 묻는 현상설계에서 단계겐조는 ‘대동아건설충령신역계획안’을 제출하였다.<그림 14> 그가 대상 부지로 선정한 것은 후지산 일대였고, 계획안을 통해 강조한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조형정신이었다. 특히 단계겐조가 ‘일본의 조형정신을 발전시키고 선양하는 길’을 위해 선정한 지역이 ‘일본에서 가장 숭고한 자연이며, 일본정신을 가장 명료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후지산(富士山)’이었다. 즉 일본의

정신을 상징하는 후지산에 신역(신사)을 건축하려는 사실과 브르노 타우트가 주장하는 일본의 정신인 후지산이 우연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후지산은 마치 천왕과 같다’는 브르노 타우트의 생각을 건축적으로 실현한 것이며, 새로운 일본건축의 길은 “일본인이 정신적으로 유럽에 도달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일본에서 출발해야 한다.”³⁸⁾라는 브르노 타우트의 ‘제삼 일본론(第三日本論)’을 건축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5>



<그림 14> 후지산 일대에 계획된 대동아건설충령신역계획안, 1941



<그림 15> 브르노 타우트의 후지산 스케치, 1933

한편, 1930년대 이후 진보적 건축가들의 노력으로 근대건축의 몇 가지 성공사례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대주의와 민족주의와의 접점 속에서 일본건축의 표현방법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그 결과를 이론적으로 방법화한 것이 전쟁 중의 호리구찌(堀口捨己)였고, 그 방법을 건축적으로 완성시킨 것이 전쟁말기의 단계겐조 등 젊은 건축가들의 작업이었던 것이다.³⁹⁾ 즉 브르노 타우트의 ‘제삼 일본론’은 그가 일본에 체류하던 시기 동경제국대학의 대학생이었던 단계겐조 등 예비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여 1940년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⁴⁰⁾ 또한 이러한 경향으로 당시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에 일본의 정신을 상징하는 건축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⁴¹⁾ 한편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형식으로 여기에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브르노 타우트의 생각은 창조 작업에서의 정신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칸트철학의 영향이 엿보이기도 한다.⁴²⁾ 물론 브르노 타우트의 ‘제삼 일본론’과 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건축가들이 주장한 새로운 일본건축양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 살

38) 한편 富士山에 대해 브르노 타우트는 ‘마치 富士山은 天과 같다’라고 한다. ブルーノタウト著, 日本, op. cit., 1941, p.60

39) 磯崎新著, op. cit., pp.135-136

40) 브르노 타우트는 1939년 7월 9, 10, 12, 13, 16, 17일 동경제국대학 공학부 건축과에서 ‘일본에서 서양건축의 의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는 ‘아직까지 일본에서 도시계획은 건축가가 취급하는 영역이 아닌 듯 하지만, 실은 건축들이야말로 이 영역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라며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1) 일본건축학회는 1942년 ‘大東亞共榮圈の 建築様式에 대하여’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좌담회에 참가했던 伊東述史 등의 건축가들은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에 일본을 상징하는 건축양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日本建築學會, 建築雜誌, 1942. 9, p.718

42) 블루노타우트著, 日本美の再發見, op. cit., p.182

34) 岸田日出刀, 序, ブルーノタウト著 平井均譯, 日本, 明治書房, 1934, p.4

35) 土肥美夫著, op. cit., p.21

36) 丹下健三, 忠靈神域計劃主旨, 建築雜誌, 1942. 12, p.963

37) 블루노타우트著, 日本家屋と生活, op. cit., p.265

펴본 바와 같이 1940년대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과 활동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독일 근대건축의 선구자, 세계적인 건축가로 불리던 브르노 타우트의 일본체류 중 활동은 일본 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의 일본 고건축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일본적인 것' '제삼 일본론'의 경우 보수적 건축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던 일본건축계에서 진보적 건축가들의 입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건축양식의 창조에 있어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절충적 양식의 건축을 국가의 얼굴로 채용하려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적인 것'과 근대건축은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브르노 타우트는 '일본적인 것'과 합리주의적(기능주의적)인 근대건축이 완전히 동일 시점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⁴³⁾ 또한 이러한 그의 활동은 단계적으로 대표되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결과는 1940년대 실제의 계획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이들 활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 근대건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브르노 타우트에 의한 건축적 영향은 일본의 현대건축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당시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은 브르노 타우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⁴⁵⁾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일본 고전건축에서 근대적 요소를 누가 발견했는가에만 문제의 중심을 두는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이보다는 브르노 타우트의 생각과 활동이 일본 근대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란 점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브르노 타우트의 건축을 합리주의적 관점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따른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주의적 경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문이 브르노 타우트 건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다만 본 논문이 의도하는 일본 근대건축계와의 관계에 한정된 부분만을 고찰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43)磯崎新著. op. cit., p.17

44)김기수·조용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건축의 동향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7.10, 13권 10호, pp.31-41

45)'1930년대 일본의 모더니즘은 바우하우스파, 포르뮈지예파, 그리고 후기 표현파에 의해 성립되었다.(중략) 분리파(分離派)건축회의 주요멤버였던 야마구찌(山口文象), 츠지우라(土浦龜城) 등의 바우하우스파, 레이몬드, 마에가와(前川國男), 사카쿠라(坂倉準三), 단계겐조 등 포르뮈지예파들에게 있어서 브르노 타우트는 과거의 건축가에 지나지 않았다' 藤森照信, 日本におけるブルーノ・タウト, 세존미술관(編), 블루노타우트1880-1938, 1994.

참고문헌

1. 블루노타우트著, 森嶋郎譯, 日本, 明治書房, 1941.
2. 블루노타우트著, 森嶋郎譯, 日本, 講談社學術文庫, 1996.
3. 블루노타우트著, 傑田英雄譯, 日本美の再發見, 岩波書店, 1972.
4. 블루노타우트著, 森嶋郎譯, 日本文化私觀, 明治書房, 1936, 1941.
5. 블루노타우트著, 森嶋郎譯, 日本文化私觀, 講談社學術文庫, 1996.
6. 블루노타우트著, 傑田英雄譯, 日本家屋と生活, 岩波書店, 1966.
7. 블루노타우트著, 傑田英雄譯, 建築とか何か, 鹿島出版會, 1974.
8. 블루노타우트著, 傑田英雄譯, 續 建築とか何か, 鹿島出版會, 1974.
7. 세존미술관, BRUNO TAUT, 1994.
8. 土肥美夫著, 블루노타우트と現代, 岩波書店, 1981.
9. 布野修司, 戦後建築の終繁, れんが書房新社, 1995.
10. 日本建築學會,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丸善, 1972.
11. 藤林照信, 近代建築の系譜, 彰國社, 1997.
12. 村松貞次郎, 日本近代建築の歴史, NHK, 1993.
13. 廣松渉, 近代の超克論, 講談社學藝文庫, 1996.
14. 井上章一著, つくられた桂離宮神話, 講談社學術文庫, 1997.
15. 井上章一著, 戦時下の日本の建築家, 朝日新聞社, 1995.
16. 磯崎新著, 建築における日本的なもの, 新潮社, 2003.
17. E. Van der Hoeven, J.J.P Oud en Bruno Taut, Nederlands Architecture institut Rotterdam, 1994.
18. Exh. Cat, Bruno Taut 1880-1938, A Kademie der Kunste, Berlin, 1980.
19. Theo Van Doesbufg, 새로운 조형예술의 기초개념, 바우하우스총서6, 1995.
20. Piet Mondrian, 새로운 조형, 바우하우스총서5, 1995.
21. H.R. Hitchcock & P. Johnson, 최중현 역, 국제건축양식, 세진사, 1997.
22. 김기수·조용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건축의 동향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7.10, 13권 10호
23. 김기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근대건축의 일본적 표현에 관한 기초적 연구, 경도공예섬유대학박사학위논문, 1988.
24. 하정운·김기수·조용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의 조형개념에 의한 현대건축의 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002.10.
25. 日本建築學會, 建築雜誌, 1942. 12.

<접수 : 2004. 2. 24>